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고강도 안전점검

전남도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8월 31일까지 22개 경기장 대상

소방·전기·가스 등 집중검사

전남도가 온 국민이 화합하는 스포츠 대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장애인체육회)를 안전사고 없는 안전체전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고도 높은 민관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오는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남소방본부, 시군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건축 구조, 시공 및 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

가 대거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중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표본 선정한 경기장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목포만다리체육센터, 목포실내수영장 등 총 22곳이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경기장 구조물 손상 여부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전선 노출 여부 ▲가스용기·배관 상태 및 가스 누출 여부 ▲승강기 운행 상태와 도어안전장치 작동 여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합동 안전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가벼운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과 함께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6월까지 2달 동안 각 시·군 경기장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2008년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다시 열리는 만큼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전한 경기장에서 충분한 기량을 펼치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저소득 위기가구 3만2000명 151억 지원

전남도 지난해 긴급복지사업

긴급생계·주거·의료비 등

전남도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2000명에게 151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더 취약해진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의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 이끈다... 명예홍보대사 위촉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최근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 전시와 특별전시가 열리는 지역 법인택시협회의회장과 문화관광해설사회

장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개막을 40여 일 앞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9월 1

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목포와 진도에 총 6개 주 전시관을 운영하며, 광양·순천·해남에 선 3개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남 11개 작은영화관 증장기 발전 세미나

40여명 참석 영상문화 진흥 논의

전남도내 군 단위 11곳에 개관한 작은영화관의 증장기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시설과의 연계 협력, 운영 주체의 다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개최될 남도영화제와 연계해 행사·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말 기준 197만명이 찾은 작은영화관의 증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지난 20일 순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전남영상위원회와 전남도가 주최·주관해 '작은영화관과 함께 만들 전남지역 영상문화의 큰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작은영화관 지자체 담당자와 운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운영됐다. 윤혜숙 화성시 작은영화관장은 서천군 기별

포영화관 사례 중심 '주민을 위한 작은영화관의 역할 확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역 내 영상문화 시설 간 협력과 지자체 지원정책 중요성과 전남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작은영화관 전국 현황과 전남 작은영화관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함주리 작은영화관 기획전 사업단장은 "다양한 운영 주체의 등장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공영상관으로서 전남만의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 남도만의 정체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용훈 한국작은영화관협회 이사장과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한 '전남의 작은영화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대의 여건으로 어려웠던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전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양수산 7개 분야 신지식인 신청하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8월 9일까지 접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수산 분야 신지식인 및 기술개발, 공유로 수산업과 어촌 혁신을 주도할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후보를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

유통·가공,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어구·어법, 레저를 포함한 어촌관광, 어촌 6차산업,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5명 내외를 선발한다. '2023년 해양

수산 신지식인' 선정 접수를 바라는 사람은 8월 9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8월 국립수산과학원의 1차 현지 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하고 10월에 해양수산부의 전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2명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선 68명이 선정돼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도 전국 4명 중 전남

에서 1위 대상과 3위 우수상 등 2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자에겐 10월 말 해양수산 인재 육성 날 행사에서 신지식인 인증서와 포상을 전달한다. 향후 신규 어업인 대상 멘토링, 실습장 지원, 강연 등 수산인력 양성과 어촌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새로운 지식습득과 창의적인 발상,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분야별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수산기술과 혁신모델을 확산시켜 선진 수산업으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완도수목원 '수목원·정원 상생 스탬프 투어'

전국 27곳 참여...기념주화 등 제공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수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산림휴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수목원·정원 상생 협력 활성화 스탬프 투어' 기관에 참여한다.

스탬프 투어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전국 27개 공·사립 수목원·정원 시설과 협업체 운영된다. 관람객이 운영기관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지난해 18개소로 시작했으며 반응이 좋아 올

해 9개소가 추가로 참여했다.

참여 방법은 전국 '수목원·정원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는 기관 안내에 따라 워크북을 수령하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도장 개수에 따라 반려식물 키트, 우리나라 자생식물 기념주화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완도수목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최대 난대림 보고인 완도수목원을 방문해 숲의 시원함과 정량함을 느끼며 좋은 추억 만들고, 스탬프 투어도 참여해 기념품도 챙겨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